

산업부장관, 미 행정부·의회 주요인사와 대미 전략투자 협의 및 주요 현안 논의

- 미 상무부·에너지부·OMB·의회 등 미측 주요 인사 면담 -
-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추진방향 및 주요 분야별 협력방안 논의 -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5월 6일(수)부터 9일(토)(미국 현지 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측 주요 인사들과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한 양국 산업·통상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장관은 우선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 상무부 장관을 면담하여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후 우리측 후속법령 제정 및 추진체계 구축상황을 미측에 설명하고, 조선·에너지 등 상호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그간 양측이 논의해 오던 프로젝트 구상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동 면담 계기 산업부와 美 상무부간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MOU를 체결하여, ‘한미 조선협력 센터’를 설립해 공동 R&D 및 직접 투자 등 기업간 협력 프로젝트를 촉진하고 인력 양성 및 정보공유 등에 있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김 장관은 러셀 보우트(Russell Vought)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국장을 면담하고 한국이 준비 중인 MASGA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미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OMB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미 에너지부 장관과는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그간 한미간 논의 진전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미 의회에서 대표적인 지한파(知韓派) 의원으로 꼽히는 빌 해거티(Bill Hagerty) 테네시주(州) 연방상원의원과 화상면담을 진행하여 원전 등 상호 관심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 이슈 등과 관련하여 상호이해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관련 미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한미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통상 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구진경 (044-203-5650)
		담당자	사무관	박종민 (044-203-5658)
	통상정책국 한미통상협력과	책임자	과 장	박홍일 (044-203-5170)
		담당자	사무관	유영석 (044-203-5171)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	책임자	과 장	이디도 (044-203-4330)
		담당자	서기관	염현호 (044-203-4332)

